



추모미사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나흘째인 21일 오전 광주시 북구 임동성당에서 열린 추모미사에서 신자들이 고인의 넋을 기리며 기도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w@kwangju.co.kr

北 김기남 “다 만나겠다”

당국에 면담 희망... DJ 분향소 헌화·묵념

이 대통령 만날 가능성

김대중 전 대통령 國葬 ▶ 2·3·4면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을 위한 북측 조문사절단이 21일 오후 4시께 국회에 마련된 김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특히 북한의 이번 조문단 방문은 지난 13일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 석방, 20일 육로통행 제한 등을 담은 '12·1조치'의 전면 철폐 발표 등 잇단 유화적 조치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게 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2월 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 당국자가 남한을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시내 한 호텔에 체류할 북측 조문사절단 일행이 우리 정부 당국자와 만날 계획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정부 당국은 밝혔지만 1박2일의 체류기간 어떤 형식으로든 정부 당국자와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21일 “다 만나겠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는 이날 오후 국회 빈소에서 조문



김기남(왼쪽)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북측 조문사절단이 21일 오후 국회에 마련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빈소에 분향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을 마치고 김대중도서관을 방문, 이회호 여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당국과의 협의의 문제와 관련해 홍양호 통일부 차관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밝혔다.

더욱이 홍 차관은 이날 김 비서 일행을 공항에서부터 계속 안내해 사실상 양측간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김 비서는 ‘서울 체류기간 만나볼 분은 많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민족화합과 북남 관계 개선의 뜻을 받들어 할 일이 많다”고 말해 정부 당국자와의 면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북측 조문단은 국회 도착 후 직접 가져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화를 앞세우고 빈소로 이동했다. 조문단이 북측에서 직접 갖고 온 조화에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조문하러 온 북측 사절단을 접견할 가능성과 관련, “그쪽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왔거나 메시지가 있다면 이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 조문단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게 없다”면서 “(이 대통령이 북측 조문단을) 만약 만나게 되면 투명하고 정당하게 만나지, 뒤로 비밀회동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獻詩

‘당신은 우리입니다’

1. 당신은 민주주의입니다.
어둠의 날들
몰아치는 눈보라 전디고 피어내는 의지입니다.
몇 번이나 죽음의 마루턱
몇 번이나 그 마루턱 넘어
다시 일어서는 목숨의 승리입니다.
아 당신은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우리입니다.

2. 당신은 민족통일입니다.
미움의 세월
서로 겨누는 총부리 거두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바라마지 않는 것
마구 달려오는 하나의 산천입니다.
아 당신은 우리들의 평화입니다.
우리입니다.

3. 당신은 이제 세계입니다.
외면 섬 아기
자라나서 거래의 지도자 거래 밖의 교사입니다.
당신의 고난 당신의 오랜 꿈
지구의 방방곡곡 떠돌아
당신의 이름은 세계의 이름입니다.
아 당신은 우리들의 내일입니다.
우리입니다.
이제 가소서 길고 긴 서사시
두고 가소서.

시인 고은

나로호 25일 발사 확정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가 오는 25일 재발사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중현 제2차관은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발사상황관리 위원회를 열어 나로호 발사 예정일을 오는 25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었던 자동시퀀스 내 압력측정 관련 소프트웨어의 오류에 대한 수정을 완료했으며 나로호와 발사대시스템 및 추적장비와 관계장비 등의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했다”며 “국제통보에 대한 고려사항과 기상조건 등을 검토해 발사예정일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발사 당일 나로호의 이륙시간에 대해 김 차관은 “지난 19일 발사 때와 같이 오후 5시로 할지는 발사하는 25일에 가서 우주비행물체를 비롯한 지구·우주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사 예정일인 25일의 기상조건은 발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발사 이전인 23일에는 나로호를 다시 발사대로 이송하고 발사 전날 최종 리허설을 거쳐 발사 예정일인 25일에는 나로호 발사를 위한 최종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광주·전남 신종플루 급속 확산

21일 하루 24명 발생

가을철 신종플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의 신종플루 확진환자들이 21일에만 24명이나 늘어나는 등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수적으로 늘어날 조짐도 보이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는 68명으로 전남 44명에서 24명이나 늘었다. 광주는 20일 8명에서 1명이 늘어 9명으로, 전남지역은 36명이었던 확진환자 수가 59명이 됐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군인 20명과 일반인 4명이며, 감염 추정 환자가 10여

명에 달하는 만큼 검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들과 접촉했던 사람들의 감염 여부도 조사중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19일 하루 발생한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108명으로 처음으로 100명 선을 넘어섰으며, 21일에는 258명으로 200명 선을 넘어섰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이날 “신종플루 감염자 수는 2천675명으로 늘었으며, 이중 831명이 현재 병원과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光州日報과 함께 행복한 주말을
DJ ‘마지막 일기’ ▶ 2면 DJ를 떠나 보내며 ▶ 3면 하의도 온 봉하 주민들 ▶ 4면 Books ▶ 8·9면 독자와 함께 ▶ 13면 시·도교육청 인사 명단 ▶ 15면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셨던 무엇보다도 국민을 사랑하셨던
당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민당에 먼저 헌화할 것임을 밝힘